

**연구와 전시**

붙이고 뿌리고 새기는 三國三色 삼국삼색 칠기

불거리는 수도권에 있다고요?

풍류 공간 속 도자기, 도자기 속 풍류 공간

K-서예, 붓으로 쓴 삶과 예술

**K-뮤지엄**

연꽃을 든 관음보살상, 툴립의 나라를 찾다

**사람과 이야기**

여름날의 아날로그, 국립춘천박물관

우리가 몰랐던 북미 원주민의 이야기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제7기 특별반을 모집합니다

# 박물관신문





04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취임



06

한·일·중 국립박물관 공동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



28

다코타 호스카 미국 덴버박물관 큐레이터



32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

연구와 전시

04 관장 취임사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박물관

06 전시

붙이고 뿌리고 새기는 三國三色<sup>삼국삼색</sup> 칠기

11 2024 한·일·중 국립박물관장회의

문화교류의 핵심은 신뢰와 존중

12 인터뷰

따로 또 같이 여는 세 나라 박물관의 미래

14 전시

불거리는 수도권에 있다고요?

18 전시

풍류 공간 속 도자기, 도자기 속 풍류 공간

21 전시

K-서예, 붓으로 쓴 삶과 예술

사람과 이야기

24 박물관 여행

여름날의 아날로그, 국립춘천박물관

28 인터뷰

우리가 몰랐던 북미 원주민의 이야기

31 잠시 멈춤

북미 원주민이 전하는 지혜의 속삭임

32 교육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제71기 특별반을 모집합니다

36 K-뮤지엄

연꽃을 든 관음보살상, 튜립의 나라를 찾다

38 주요 소식

40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42 박물관문화향연

박물관을 가득 채울 4팀 4색 공연

43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4년 8월 1일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강경남 곽흥인 류정한 이민수 이진민  
이현주 전인지 허형욱 황은순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이태연  
제호 최순우  
디자인 큐라인  
사진 박재홍 안호성  
영상 IBC미디어  
인쇄 (주)태광피엔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36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박물관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입니다.

박물관은 세계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1993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에서 학예연구사로 첫발을 내딛고 유물관리부, 역사부를 거쳐 국립전주박물관에 몸담았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 건립을 준비했고, 국립춘천박물관장을 지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제 청춘이 있고, 전문가로 깊어진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6년과 2005년, 두 번의 이전 개관 경험은 제가 지닌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내년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긴지 20년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의 위용을 갖추고 1천만 관람객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모든 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 공감각 학습공간 ‘오감’, 개관을 준비 중인 ‘문화유산 과학센터’는 세계적으로 높아가는 우리 문화의 위상에 걸맞게 내딛는 한걸음이요, 도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열어주신 역대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과 관계자, 박물관을 찾아주신 관람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빛나는 역사와 우수한 자원을 이어받은 소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관장의 무거운 소임보다는 박물관의 즐거운 소명을 먼저 상기하려 합니다. 박물관은 사람을 기억하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모두가 편하게 찾아와 문화유산을 만나고, 쉽게 검색하며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같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및 아카이브의 보존, 조사와 연구, 전시, 교육, 홍보 등 박물관 모든 분야의 성과를 점검하여 완성도를 높ی겠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물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와 개인의 역량이 존중받아 관람객 만족이라는 더 큰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물관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이자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알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특히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 큰 공감과 재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 박물관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더욱 활발히 교류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내 관람객의 세계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힘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추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의 박물관이며, 모두를 위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은 날로 향상되어야 하며 국적이나 연령,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좀 더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을 변함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박물관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한 이래 20여 년간 국내 어린이박물관을 선도하는 싱크 탱크 기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육 전용 공간으로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융합 교육, 연령대별 차별화된 전시 체험, 가족 중심의 다목적 힐링 공간 조성에 각별히 신경 쓰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물관의 세계화는 지역 문화와 함께일 때 더 힘차게 뻗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곳곳 13개 소속 박물관에 힘을 싣겠습니다. 각 소속 박물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중심지로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장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 붙이고 뿌리고 새기는 三國三色<sup>삼국삼색</sup> 칠기

한·일·중 국립박물관 공동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

2024.7.10.~9.22.

도1.  
조칠 매화무늬 찬합  
중국 청 17~20세기  
높이 17.6cm, 입자름 39.5cm  
중국 국가박물관



## 삼국 공통의 천연 도료, 옷칠

전시의 주제는 '칠기'로 칠기의 주원료인 옷칠은 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옻나무의 수액으로 얻은 천연 도료이다. 한·일·중 삼국은 공통의 재료인 옷칠을 사용하여 각각 나전칠기, 마키에[蒔繪], 조칠기[彫漆器]라는 고유의 칠공예품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칠공예품 제작이 가장 활발했던 14~19세기의 삼국 칠기 46건을 한자리에 모았다.

도3.  
나전 칠 십장생무늬 이층 농  
조칠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높이 130cm, 너비 83.0×42.5cm  
이진희 기증  
진희 4362



도5.  
마키에 칠 연꽃무늬 경전 상자  
일본 무로마치시대 15세기  
높이 17.5cm, 너비 32.1×19.6cm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이번 특별전은 한국, 일본, 중국의 상호 우호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열린 한국, 일본, 중국의 국립박물관장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전시이다. 삼국 국립박물관은 2012년 회의에서 서로의 문화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특별전 개최에 합의, 삼국의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로 공동 기획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국가 표기 순서는 그해 전시 개최국 뒤에 다음 전시 개최국을 표기하기로 하고, 2014년 도쿄국립박물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도자기, 회화, 청동기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개최했다.

도4.  
나전 칠 모란·녕쿨무늬 상자  
조선 17~18세기  
높이 12.0cm, 너비 28.0×28.0cm  
적수 3712



## 얇은 듯 다르게, 저마다 고유한 예술성

동일한 옷칠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삼국 칠공예품은 나라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개성을 자랑한다. 시간의 예술이라고도 불리는 공통의 옷칠 문화는 진주빛이 영롱한 자개를 붙여 꾸민 한국의 나전칠기, 금가루를 정교하게 가공하여 옷칠 면에 뿌려 장식한 일본의 마키에 칠기, 겹겹이 칠한 칠 층에 섬세하게 무늬를 새긴 중국의 조칠기로 발전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삼국삼색三國三色的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

도2.  
조칠 산수·인물무늬 운반 상자  
중국 청 건륭(재위 1735~1796)  
높이 32.0cm, 너비 34.5×18.8cm  
중국 국가박물관







중국 조철기. 겹겹이 칠한 칠 층에 다채로운 무늬를 새기는 독특한 기법으로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일본 마키에 칠기. 회화에 가까운 표현 기법을 구축하며, 차 문화 도구 등 생활 속 공예품으로 뿌리내렸다



한국 나전칠기. 고려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다양한 소재와 타찰법이라는 조선의 새로운 기법을 접목해 독보적으로 발전했다

1부는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국 조철기를 선보인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옷칠 기술을 발전시켰다. 단색으로 칠한 실용품부터 채화, 금은 평탈, 나전 상감, 조철 등 화려한 장식의 공예품까지 많은 칠기를 만들었다. 이번 전시에는 여러 칠 층의 다채로운 색과 다양한 무늬 조각을 보여주는 적홍(剔紅), 적서(剔犀), 적채(剔彩) 등 중국을 대

표하는 조철기와 창금(戗金), 묘금(描金) 등의 금장식 칠기를 전시한다. 특히 조철기는 옷칠 기술, 회화, 조각이 결합한 독특한 장식 기법의 칠기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운 기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서로 다른 장식 기법을 조합하여 고유의 예술성을 창조한 중국의 칠기 문화를 만날 수 있다.<sup>되·2</sup>

2부는 영롱한 진주빛을 내는 한국 나전칠기를 이야기한다. 적어도 2,500년 전부터 칠기를 만들었던 한국은 이웃 나라 중국, 일본과 달리 고려시대부터 나전칠기를 독보적으로 발전시켰다. 자개와 대모(거북 등껍질)로 장식한 정교한 고려시대 나전칠기는 조선 나전칠기로 전통이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시대 양식을 반영한 소재와 새로운 장식 기법인 타찰법(打擦法)을 사용하여 한층 더 다양한 무늬로 칠기를 장식했다. 16~17세기 전란을 거치면서 무늬와 형식에 점차 변화가 생겼고, 19세기 이후 나전칠기의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기물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렇게 끊임없

도6.  
기독교 성인이 새겨진 수출용 상자  
일본 아즈치 모모야마~에도시대 16~17세기  
높이 3.0cm, 너비 15.2×18.3cm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 문화교류의 핵심은 신뢰와 존중

## 제13회 한·일·중 국립박물관장회의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이 7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3회 한·일·중 국립박물관장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국립박물관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재확인했다.

한·일·중 국립박물관장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대표 국립박물관 간의 공동 협력과 우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공동협의체이다. 2006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제안으로 회의체를 창립한 이래 2년마다 세 박물관이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회의와 연계하여 한일중 삼국의 도자, 회화, 호랑이 미술, 청동기, 철기 등을 주제로 공동 기획 특별전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세 박물관이 관장회의 후속 사업으로 박물관의 문화마케팅, 국제전시기획 등을 주제로 소규모 온라인 실무워크숍도 진행했다.

제13회 한·일·중 국립박물관장회의는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일본 후지와라 마코토(藤原誠) 도쿄국립박물관장, 천리(陳莉) 중국 국가박물관 부관장의 주도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됐다. 세 박물관은 2025~2026년이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래 지향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세 박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을 계기로 한·일·중 보존과학 공동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세 박물관이 현재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전시, 인적교류 등이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년 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제14회 한·일·중 국립박물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제13회 한·일·중 국립박물관장회의와 연계해 개최 중인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철기〉 전시를 관람하며 삼국 철기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회의에서 세 박물관은 무엇보다 끈끈한 우애와 신뢰를 확인했으며, 더 자주 더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한·일·중 국립박물관은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국립박물관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나가길 기대한다.

정리, 편집팀



들어 보는 영상을 설치해 철기 제작을 간접 체험하고 놀이하듯 재미있게 전시 감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직접 만든 철기 이미지를 기념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다섯째, 깊이 있는 지식 탐구를 위해 삼국 전공자가 함께하는 국제학술강좌를 9월 6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일·중 삼국 국립박물관을 대표하는 철기를 함께 전시하여 삼국 칠공예품의 특징과 예술적 성과를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다. 서로 닮았으면서도 자신만의 특징을 지닌 삼국의 칠공예품, 생활용품에서 장식미술로 발전한 아름다운 칠공예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글. 오세은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삼국 공통의 옷칠 기술이 삼색의 고유한 기법과 개성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는 변화를 추구하며 기능성과 예술성을 함께 담아낸 한국의 대표 칠공예품 나진철기를 소개한다.<sup>53·4</sup>

3부에서는 화려한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일본 마키에 칠기를 만날 수 있다. 일본은 16세기 이후 긴 전란의 시대가 지나고 260여 년 동안 안정된 사회를 이룩했다. 이런 시대 변화 속에 일본 칠공예가 널리 보급되고 발전했는데, 그 중심에 마키에 칠기가 있었다. 옷칠로 무늬를 그리고 굳기 전에 금은 가루를 뿌려 장식하는 마키에 칠기는 회화에 가까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고, 도기다시 마키에[研出蒔繪], 히라 마키에[平蒔繪], 다카 마키에[高蒔繪] 등 다양한 기법으로 발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키에 장식 기법과 함께 차문화에 등장한 마키에 그릇 등 칠공예품에 담긴 일본 고유문화를 소개한다. 또한 외래 영향과 교류로 제작한 남만칠기 등을

전시하여 생활 속 깊이 뿌린 내린 일본 칠공예품을 함께 소개한다.<sup>55·6</sup>

### 삼국 칠기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이번 전시를 함께, 재밌게,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포인트를 소개한다.

첫째, 커커이 칠해지는 옷칠과 삼국 고유의 칠공예품 제작 기법을 상징적으로 재해석한 '삼국삼색' 미디어 아트가 전시실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둘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리플릿을 마련했다. 전시실 입구의 QR코드에 접속하면 상세한 설명, 쉬운 설명, 영어 등 다양한 방식의 전시해설을 감상할 수 있다.

셋째, 일러스트로 만든 삼국의 철기 제작 영상으로 철기의 제작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넷째, 전시실 출구에 철기의 무늬를 만



# 따로 또 같이 여는 세 나라 박물관의 미래

후지와라 마코토(藤原誠) 도쿄국립박물관장·천리(陳莉) 중국 국가박물관 부관장

한국, 일본, 중국의 교류 역사는 길고 깊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반목했지만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는 저마다의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쳤고 서로의 발전을 견인했다. 삼국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장회의는 그 오랜 역사 위에 올라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제13회 회의 참석차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도쿄국립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박물관 부관장을 『박물관신문』이 만났다.

**Q 2022년 제12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다소 아쉬웠을 듯합니다. 이번 제13회 국립박물관장회의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직접 방문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A 후지와라 마코토** 2년 전 취임 직후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니다. 이번에는 새로 부임하신 국립중앙박물관 김재홍 관장님과 중국 국가박물관의 천리 부관장님을 직접 뵙고 대화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A 천리** 팬데믹·엔데믹으로 박물관 안팎에서 큰 변화를 겪은 뒤 다시 모이게 되니 굉장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삼국 박물관이 발전하기 위해 전시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기뻐했습니다.



천리(陳莉) 중국 국가박물관 부관장

**Q 한·일·중 공동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가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 관람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전시품과 각국의 ‘칠기’ 관련 문화유산을 소개해 주신다면?**

**A 후지와라 마코토** ‘흑칠 대추모양 차통’을 추천합니다. 이 작품은 다도에서 말차를 넣는 용기입니다. 16세기 무렵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는 자리를 마련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차노유(茶の湯)라는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조선시대 그리고 중국의 송·명대의 도구가 일본의 도구와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미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애호되었습니다. ‘흑칠 대추모양 차통’은 단순하면서도 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형태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 도구로 애용되었습니다. 이 작품과 함께 사용하고 싶은 한국의 차도구를 상상하시면서 전시를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A 천리** 중국은 칠기를 매우 일찍부터 사용했습니다. 칠기 제품은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기능성에 조형성과 장식을 더해 칠기 공예가 발전했고 아름다운 칠기 작품들이 많이 제작됐습니다. 중국의 ‘조칠’ 기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옷칠을 100겹 정도 바른 뒤 조각을 합니다. 이 제작 기법은 중국 송나라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명·청대에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조칠 작품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홍색을 띕니다. 이번 전시에서 중국의 조칠 기법을 잘 보실 수 있는 작품으로 ‘조칠 산수·인물 무늬 운반 상자(剔紅山水樓閣人物紋雙聯提匣)’, ‘조칠 꽃바구니 무늬 항실 의식용 도구(여의)(剔紅花籃花卉紋如意)’, ‘조칠 매화 무늬 찬합(乾隆款剔彩冰梅紋花瓣式攢盒)’, 명나라 때 제작된 ‘흑칠 ‘중화’ 글자가 있는 금(黑漆‘中和’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Q 삼국의 칠기는 개성이 뚜렷하지만, 서로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문화교류를 해왔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맥락과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A 후지와라 마코토**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외 문물이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국가 간 공적 교류가 없었던 시기에도 사무역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문물이 유입되었죠.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물건들은 고급 회연을 장식하는 고급품으로 귀중하게 다뤄지면서 소유자의 재력이나 품성, 미적 감각을 보여주었어요. 따라서 일본 문화는 동아시아의 문화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옷칠 기법인 ‘마키에’도 과거의 중국과 한국에서 성행하던 기법의 영향으로 시작되어 제작 기술이 무르익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키에’의 발달은 일본 공예품의 발전으로 이어져 나중에는 수출로도 이어졌죠. 다른 문화의 수용이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문화를 성숙시키고 이를 해외에 소개하는 이른바 문화의 순환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활발하게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A 천리**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문적으로 통하는 부분에서 교류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삼국의 교류와 문화적 접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가 각국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만나 발전되고 계승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을 이번 특별전이 잘 보여주고 있죠. ‘칠기’라는 매개체에 담아 삼국의 귀중한 문화교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오늘날 삼국의 문화 연대감이 중요한 이유, 향후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견해와 기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후지와라 마코토** 삼국의 문화는 긴 역사와 깊은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연결은 문화적인 공통점을 강화했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 박물관이 협력하여 선보인 전시들에서 세 나라의 문화적 공통점과 독자성을 모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삼국의 문화 연대감을 높여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과 우수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동아시아의 문화 독창성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천리** 삼국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깊은 교류를 이어온 만큼 협력의 깊이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의 문화 기관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야 대중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박물관은 포용적인 태도로 교류에 협력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전시와 출판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만큼 함께 학습할 수 있고 또 성장해갈 수 있겠죠. 현재 중국 관람객들의 박물관에 대한 열정과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박물관의 관람객은 약 675만 명이었는데 그중 60% 정도



후지와라 마코토(藤原誠) 도쿄국립박물관장

가 35세 이하의 청년 세대였어요. 박물관에 대한 높은 문화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고민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삼국이 협력한다면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협력하고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될 수 있다면 삼국의 문화 산업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Q 제13회 국립박물관장회의를 마친 소감을 들려주세요.**

**A 후지와라 마코토**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부임하신 김재홍 관장님의 취임을 축하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주제로 앞으로도 세 박물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우호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세 박물관은 미래를 위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인적 교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공동 조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더욱더 발전된 교류와 협력 내용을 담고 있어 기대가 큼니다. 더불어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커다란 분수령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도쿄국립박물관에서는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밖에도 다양한 교류들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6년 제14회 국립박물관장회의는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 천리** 삼국이 협력을 시작한 지 올해로 25주년이 됩니다. 또 얼마 전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박물관의 협력 성과가 공고해지는 데 문화교류 부분에서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전 인류 공통의 가치를 홍보하며 상호 존중과 공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국립박물관장회의의 맥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님과 후지와라 마코토 도쿄국립박물관장님과 함께 노력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삼국의 문화교류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웃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까지도 통할 수 있도록요.

진행. 편집팀



# 볼거리는 수도권에 있다고요?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문화 대표 주자들이 순회 전시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각 시·도 지자체 및 지역 공립박물관·미술관과 협력하여 기획한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가 현재 당진(6.21.~8.11.), 보령(6.6.~9.1.), 합천(6.5.~7.21.), 상주(6.10.~9.1.), 강진(6.11.~9.8.), 남원(6.18.~8.25.) 6곳에서 열리고 있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조선백자〉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도자기에 핀 꽃, 상감청자〉의 어린이 관람객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조선백자〉

## 국보순회전, 감동과 특별함을 전하다

“지역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보를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단체 관람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관람객 수가 약 242% 증가했어요. 국보를 관람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박물관의 열악한 환경도 관심과 노력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별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말,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 개최 희망지를 공모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국보·보물 등 국가유산 6종(총 22건 29점)을 주제별로 3~7점씩 묶어 전시를 기획하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순회 전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지자체 30여 곳이 응모, 12곳이 최종 선정

됐다.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던 과정이었고, 그 결과는 각 지역 전시 담당자들의 생생한 전언에서 재확인된다.

“조선백자”라는 주제를 보고 바로 신청했어요. 남원시는 임진왜란부터 이어진 흥미로운 백자 이야기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라 생각했어요. 지역의 어린이들이 백자를 이해하는 계기도 되고요.”

“고려시대 왕실용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는 아쉽게도 국가유산이 없습니다. 국가유산에 대한 지역의 갈증을 이번 전시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주시민 분들이 평소 박물관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 모두가 함께 한 특별한 기회

국보순회전의 기획 취지는 학술적 연구 성과의 공개나 대중적 홍보보다는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직접 찾아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이가 공감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관 학예연구직 14명이 나누어 전시 글을 썼으며 교육과와 어린이 박물관과 교육직 10명이 함께 밤낮으로 고민하여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전국을 돌며 12곳의 전시 연출을 위해 모델화된 전시물을 개발하고 공간 연출에 전력한 디자인팀 담당자, 소속관의 전시 담당자 12명, 출범식에 참석하여 전시를 응원한 12개 지자체 대표들과 12곳의 개최 담당자들까지 이번 전시에 직접 함께한 이들만 150여 명에 이른다.

“국보가 온다는 소식에 내부 직원 분들이 권총을 차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시 장소가 협소하고 특별전시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모듈화된 전시물을 설치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시 환경을 개선하며 여러 고민 끝에 펼쳐진 전시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좋아해주셔서 보람을 느낍니다.”

“전시를 개막한 이튿날인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전시실로 달려갔죠. 전시품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아늑한 마음을 진정하며 연락을 취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국보순회전의 6개 주제는 모두 '교과서 속 문화유산'이다. 글이나 자료 사진이 아닌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에 교육 현장이 빠르게 반응했다. 신라국관, 기마인물형토기, 청자, 백자, 농경문청동기 등 우리 문화유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려는 각급 학교의 요청이 이어졌다. 지역 학교들은 학사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박물관을 찾아 학생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개최지의 경찰서는 수시로 순찰하며 지역을 찾은 국가유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는 단순히 국가유산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퓨전국악, 밴드 공연, 마술 행사, 연극에 이르기까지 전시와 연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지역 축제의 장을 연출하고자 했다. 이것이 적중하여,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증가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소식이다.

“지역민들이 전시품의 감동에 더해 전시  
연출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시실  
전체가 백자처럼 하얗습니다.  
전시 연출이 고급스러워요.  
7월 7일 방명록에 적힌 어느 관람객의  
글을 옮겨 봅니다. ‘아름다운 순백의  
전시 공간, 감상에 빠졌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 국보급 전시품을  
관람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순회전을  
보러 가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역  
관광, 문화유산 관광, 홍보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지역 담당자가 힘을 합쳐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전시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 문화누림의 확대를 위한 첫걸음

상반기 전시로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 하반기에는 중평민속체험박물관(9.6.~12.8.)을 시작으로 양구백자박물관(9.12.~12.8.), 장수역사전시관(9.13.~12.1.), 고령 대가야박물관(9.26.~12.15.), 함안박물관(9.30.~12.15.), 해남공룡박물관(10.2.~12.8.)에서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상반기 각 지역 전시 현장에서 보내온 이야기에서 보듯, <국보순회전: 모두의 결>으로)는 새로운 시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첫 시도이기에 따르는 어려움과 고충도 적지 않았다. 기획부터 교육, 전시 운영 및 연출까지 여러 조직과 많은 인력이 협업하다 보니 원활한 정보 공유가 아쉽기도 했고, 각 지역과 박물관 특성을 좀 더 반영해서 개성 있는 전시를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지기도 했다.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전  
시품의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이

어졌다. 이러한 현장의 당부들은 향후 국  
보순회전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할 것이다. 분명한 점  
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이가 문화누  
림 확대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이번의 작은 시작  
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큰 울림이 되기  
를 바란다.





국립광주박물관

# 풍류 공간 속 도자기, 도자기 속 풍류 공간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lt;도자기, 풍류를 품다&gt;

2024.6.21.~9.22.



조선 후기 문인의 풍류를 담은 도자기들

도자기는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사람이 사는 공간에 함께했다. 때로는 어떤 장소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자기 자체가 하나의 공간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자기의 특성에 주목해 '도자기와 공간'을 함께 탐구하는 첫 전시를 '풍류<sup>風流</sup>'로 풀어보았다.

## 풍류를 품은 정자와 도자기

풍류는 사전적 의미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을 뜻한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자연 속에서 차와 술을 나누고, 시문을 짓고 읊으며, 음악을 애호하는 등 풍류를 즐겼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정자<sup>亭子</sup>이고, 그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이 도자기다. 그래서 특별전 <도자기, 풍류를 품다>는 광주·전남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정자로부터 시작한다.

1부 '풍류의 공간, 정자'에서는 '누각과 정자'에 대한 여러 문헌 자료 등을 근거로 구조적 특징, 건립 목적, 정자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주목할 문화유산은 16세기 누각의 구조를 보여주는 보물 <회경루방회도<sup>喜慶樓榜會圖</sup>><sup>도1</sup>이다. 이 그림은 2023년 9월 광주광역시와 광주공원에 '회경루<sup>喜慶樓</sup>'를 새롭게 지을 때, 중간에 결정적인 원형 자료를 제공한 작품으로, 지역민들에게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정자 구조를 보여주는 보물 <화개현구장도<sup>花開縣舊莊圖</sup>>와 <성과 요새 무늬 병>, <정자를 그린 산수 무늬 병>은 누각과 정자의 구조와 세워진 목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부 '최고의 민간 정원 소쇄원<sup>蕭澗園</sup> 그리고 도자기'에서는 '정자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해 본다. 실제 소쇄원 광풍각<sup>光風閣</sup> 평면도를 바탕으로 도자가 있던 내부 공간과 그곳을 둘러싼 외부 공간을 재해석하여 전시실을 구성했다.<sup>도2</sup> 1칸 남짓한 작은 방에서 학자로서 학문에 깊이 빠졌던 문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온돌방이 딸린 전남 정자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각·청각·후각 등 공감각적 공간 연출로, 실제 정자에 와 있는 듯한 풍류 한 자락도 느낄 수 있다.

3부 '풍류를 즐긴 자리의 도자기'에서는 도자기에 녹아 있는 풍류를 공감해 본다. '정자'에 가까운 지인이 찾아오면 접빈음료인 차와 술이 빠질 수 없다. 차와 술은 정자를 찾아온 손님에 대한 주인의 반가운 마음의 표현이며, 이때 음료를 담은 그릇은 풍류의 자리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술그릇에 남겨진 시는 그 공간의 흥취를 더한다. 특히 그동안 발굴 조사된 지역 누정 출토 도자기를 소개하고 있어, 누정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sup>도3</sup>



도1.  
<회경루방회도> 누각 부분  
1567년  
비단에 채색  
전체 98.5×76.8cm  
동국대학교박물관  
보물



도2. 광풍각을 재해석해 입체적으로 조명한 전시 공간



도3. 누정에서 출토된 도자기 전시 공간





관람객에게 '풍류'의 의미를 물으며 마무리하는 전시

4부 ‘풍류를 품은 도자기’에서는 조선 후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유행한 문인 아취雅趣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자기를 만나본다. 조선 후기에는 사물이 지닌 본성을 탐구하는 것을 유가적 미덕이라 여겨 아름다운 것을 즐겨 구경하는 소위 ‘완상玩賞’이 유행하였고, 이 완상품들은 도자기라는 공간에 들어가 문인들이 즐기는 또 하나의 풍류가 되었다. 온갖 귀한 물건을 품은 ‘기명절지 무늬 백자’, 중국 풍경과 고사를 담은 ‘산수 무늬 백자’<sup>도4·5</sup>, 기괴한 돌과 꽃이 어우러진 ‘괴석 꽃 무늬 백자’, 문인이 닮고 싶어 했던 ‘사군자 무늬 백자’<sup>도6</sup> 등 당시 사회상을 투영하고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다.

#### 당신에게 풍류는 어떤 의미인가요?

달 밝고 바람 부는 밤이면 때론 시름에 젖거나 때론 태평시절 노랫소리를 기억하는 오래된 잔에서 옛사람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옛 정자 터 흙 속에서 찾아낸 금가고 깨진 술병과 잔에서는 술에 취해, 이백李白의 시에 취해 풍류를 즐겼던 옛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도자기, 풍류를 품다〉는 옛 그릇에서 옛사람의 풍류를 읽고자 하였다. 전시를 보며 이렇게 풍류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면 우리 DNA 속에 면면히 흐르는 풍류도 깨어나지 않을까?

이번 전시가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이른 아침 마시는 맑은 차 한잔처럼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관람을 마치고 전시장을 나서며 “내가 생각하는 풍류는  이다”에 답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두었다.

글. 김희정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도4.  
백자 청화 소상팔경 무늬 팔각연적  
조선 19세기  
높이 12.6cm, 지름 17.5cm  
선수 15150



도5.  
산수 매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조선 18세기  
높이 38.1cm, 최대 지름 31.0cm  
수정 285



도6.  
매화 대나무 무늬 접시  
조선 19세기  
높이 4.8cm, 지름 23.3cm  
남산 2029



전시

# K-서예, 붓으로 쓴 삶과 예술

인천공항박물관 특별전 〈서예書藝, 일상에서 예술로〉  
2024.6.27.~2025.2.28.

서예는 글씨로 완성되는 예술이다. 글씨를 쓴다는 것은 짧은 글이나 편지, 일기처럼 일상의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동시에 익히고 배우는 학문이다. 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예술적 구성과 자형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창작 활동이기도 하다.

지난 6월 27일, 인천공항박물관에서 특별전 〈서예書藝, 일상에서 예술로〉가 문을 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공항박물관에서 소속 국립박물관의 특성화 사업 관련 기획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대구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에 이어 세 번째로, 국립전주박물관의 ‘서예 문화’를 소개한다.

특별전은 한국 서예가 일상과 매우 가까우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예술임을 조명한다. 서예는 글씨로 완성되는 예술이기에, 보는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에 비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글씨를 쓴다는

것은 편지, 일기처럼 일상의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한국의 전통 서예가 부단히 익히고 배우는 학문적 성격이 강했다면, 근현대 서예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예술적 구성과 자형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창작의 성격이 강해졌다.

전시 공간은 큐브 형태를 띤 인천공항박물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좌우 2개의 벽부장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영상으로 구성했다. 1부 ‘삶을 쓰다’는 벽부장 내부를 사랑방 공간처럼 연출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 두었던 종이, 붓, 먹, 베틀 등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전시했다. 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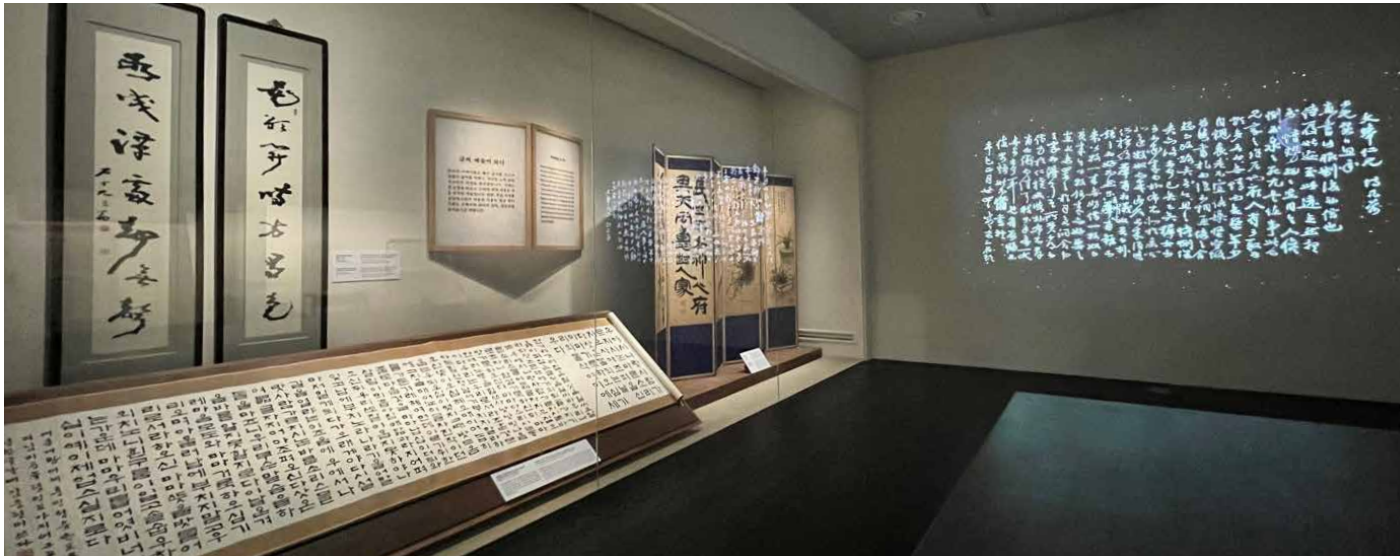


도1.  
정약용이 윤규로에게 쓴 편지  
조선 1821년  
가로 57cm  
전주 68662



도2.  
홍선대원군이 쓴 석양산장 현판  
조선 19세기 후반  
가로 131.5cm  
전주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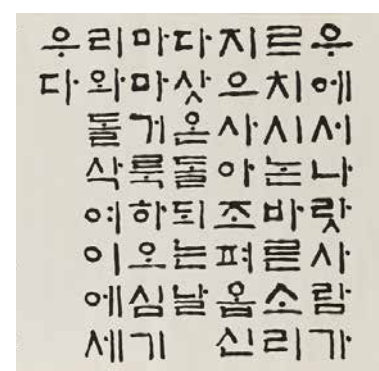
도3.  
김규전이 쓰고 그린 난과 대나무  
1922년  
세로 130.3cm, 가로 40.3cm  
구 3313



가족에게 보낸 편지<sup>도1</sup>, 스스로 수양하고자 썼던 경전, 하루를 돌아보며 적은 일기, 머무는 곳의 편액<sup>扁額</sup><sup>도2</sup>은 글쓴이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폭이 좁은 경상과 손때 묻은 붓, 한 손에 잡히는 두꺼비 연적, 반쯤 닳은 먹은 서예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맞닿았음을, 삶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2부 ‘글씨, 예술이 되다’에서는 부단한 노력 속에 자신만의 서법을 완성한 서예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글씨와 그림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서화동원<sup>書畵同源</sup>)’는 전통적 개념을 근대기로 이어준 서화가 김규진(1868-1933)의 〈난죽서예병풍〉<sup>도3</sup>, 한글 고체<sup>古體</sup>를 탄생시킨 김충현(1921-2006)의 〈훈민정음반포 500주년 기념비문〉에서는 그들의 개성적인 서체를 확인할 수 있다.<sup>도4</sup> 또 전북에서 활동한 황욱(1898-1993)의 글씨는 노년의 수전증을 극복하고 왼손 전체로 붓을 쥐고 쓴 악필법<sup>握筆法</sup>의 결과이다. 전시품의 일부는 10월 말에 교체돼 11월부터는 새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객들에게 K-서예의 매력을 전하고자 화·목·토 3일간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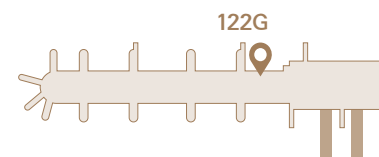
도4.  
김충현이 쓴 훈민정음 반포 오백주년 기념 비문  
1979년  
가로 296cm  
2013년 일중헌생기념사업회 가증  
중 9193

#### 인천공항박물관

위치: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지역

출국장(3층) 서편 122G 부근

운영 시간: 09:00 ~ 18:00



QR코드에 접속하면  
인천공항박물관 특별전  
(서예<sup>書藝</sup>, 일상에서 예술로)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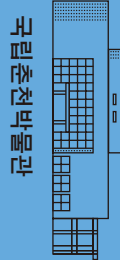
램을 운영한다. ‘또박또박 써 내리는 글씨’는 전시품에 나오는 한자·한글 단어나 문구 도안에 필름 엽서를 대고 베껴 쓰는 체험으로 필사의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다. 또 ‘살랑살랑 불어오는 글씨’는 전주 한지 부채에 자유롭게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고 도장을 찍어 마무리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부채를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다.

글쓰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는 일상적인 행위이기에 관람객들은 자신의 글쓰기 도구와 글씨를 떠올릴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전통 글쓰기 도구 중 먹물을 만드는 벼루와 먹, 연적, 그리고 의자가 없는 낮은 책상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울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서예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자나 한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눈으로 손가락으로 필선을 따라가며 점과 획이 만든 글씨의 조형미와 먹의 강약, 필획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곧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길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며 잠시나마 K-서예의 멋을 오롯하게 느껴보길 바란다.

글. 오다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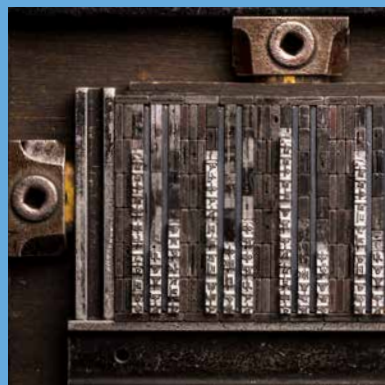
여름날의  
아날로그

서울에서 춘천을 잇는 46번 국도의 다른 이름은 경춘 가도, 한 마디로 '춘천 가는 길'이다. 수려한 산지락과 북한강을 바라보며 호젓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호반의 도시 춘천은 언제나 향하고 싶은 청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아닐까. 계획 없이 훌쩍 떠나기 좋은 계절, 스무 살의 설렘이 있는 그곳, 춘천으로 떠났다.



1 의암호 물레길

자동차 23분 13km



©책과인쇄박물관

2 책과인쇄박물관

자동차 15분 11km



바위 위에 앉은 나한  
고려 말~조선 초  
세로 39.9cm  
춘천 34303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이필수

3 구불산 카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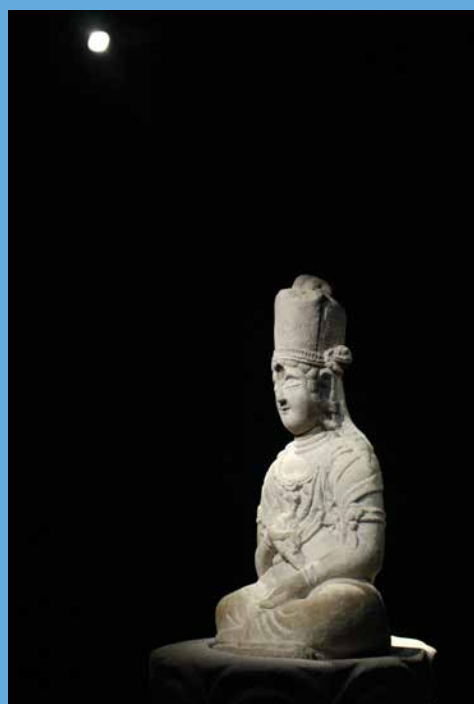
자동차 10분 5km

4 국립춘천박물관



백자 청화 철화 산 모양 붓 씻는 그릇  
조선 19세기  
높이 11.5cm, 가로 23.0cm  
특수 1131

한송사 티 석조보살좌상  
고려 10세기  
높이 92.4cm  
국보  
산수 1370



# 향기

# 하

# 기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박윤준

의암호 물레길

## 자연이 완성한 데칼코마니 의암호 물레길

‘청춘의 가장 반짝이던 때’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춘천. 누구에게나 청춘의 메타포와 같은 도시로 기억되는 춘천에는 아름다운 계절의 정취가 그대로 투영되는 의암호 물레길이 있다. 의암호는 1967년 만들어진 인공 호수로 의암리 옷바위 근처 협곡을 막아서 의암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를 계기로 산악의 도시로 불리던 춘천은 호반의 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의암호 안에는 상중도, 하중도, 봉어섬 등이 삼악산 자락과 어우러져 자연호 못지않은 풍광을 자랑한다.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호수를 오롯이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30km에 이르는 완만한 자전거길에서 라이딩을 하는 방법과 의암호에 비친 하늘의 데칼코마니를 감상할 수 있는 물레길에서 카누를 타는 방법이다.

통나무 가운데를 파서 만든 카누는 인류

가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해 온 오래된 이동 수단으로 그 자연스러운 매력에 이끌려 물살을 가르느 순간 기분 좋은 바람결을 느낄 수 있다. 선착장에서 나무 카누를 타고 출발해 무인도를 돌아보는 시간, 호수에 비친 파란 하늘 위로 카누가 미끄러지듯 풍경을 가른다.

## 책 한 권에 담긴 영혼 책과인쇄박물관

모든 책은 저마다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영혼과 그 책을 만든 인쇄공의 영혼과 그것을 읽고 꿈꿔왔던 독자들의 영혼까지 모두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있다. 활판인쇄를 주제로 한 권의 책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공간, 책과인쇄박물관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납을 녹여 만든 활자와 주조기, 활판 인쇄기 등이 빼곡하다. 거기서 퍼져 나오는 금속과 잉크 특유의 냄새도 가득하다. 근대 ‘인쇄’ 문화의 현장에 와있는

듯, 생경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전해주는 전시관은 자연스레 ‘책’의 역사와 추억으로 이어진다. 『훈민정음』을 비롯해 조선시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천자문』과 『명심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동의보감』 등 인쇄 초기의 고서부터 개화기의 서적들, 오래된 교과서와 낡은 만화책까지 준비하게 전시되어 있다.

관람뿐 아니라 활판인쇄 체험도 가능하다. 원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해당하는 활자를 찾아(문선), 조합하고(조판), 종이에 찍는(인쇄) 간단한 과정에서 작가-인쇄공-독자의 오랜 교감을 느껴봄 직하다.

활자 인쇄 1,300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에게 책은 곧 삶이자 문화·예술의 보고다. 그 정신을 근대사회로 연결했던 중요한 기술을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곳, 민족시인 김소월의 시집 초간본이 전시된 이곳 책과인쇄박물관은 한 권의 책이 지닌 무게와 가치를 되새겨보게 한다.



**커피를 닮은 풍경**  
**구봉산 카페 거리와 이디오피아집(벳)**

춘천의 풍광을 한눈에 담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구봉산이 제격이다. 도심 외곽 동쪽, 아홉 개의 봉우리가 길게 뻗은 구봉산엔 색다른 등산 코스가 있다. ‘구봉산 카페 거리’다. 1990년대만 해도 전망대와 휴게소 한 곳만 있던 산 중턱에 도로가 생기면서 운치 있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은 춘천 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도 즐겨 찾는 춘천 대표 카페 거리로 자리 잡았다.

카페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시설로 구봉산의 전망을 끌어들인다. 대부분 벽면을 통유리창으로 터놓거나 야외 테라스(옥외 공간), 루프톱(옥상)을 두고 있다. 정성껏 가꾼 정원에서 가든 콘서트나 클래식 음악회를 여는 곳도 있다. 한적하고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들으려는 이들이 즐겨 찾는다. 그리스 산토리니를 떠올리게 하는 외관, 투명 유리로 에워싸인 스카이 워크(고가<sup>高架</sup> 통로) 등 시선을 사로잡는 카페 건물도 여럿이다. 이들이 어우러져, 탁 트인 시야 속 그림 같은 풍경을 빚어낸다. 오로지 이 풍경화를 감상하고자 산을 오르는 이들이 적지 않고, 특히 노을이 아름다운 날이면 산속 카페 거리는 도심 못지않은 활기를 띤다.

커피 애호가라면 춘천 공지천 옆에 자리한 카페 ‘이디오피아벳(Bet: 집을 뜻하는 에티오피아 어)’을 둘러봐도 좋겠다. 이곳이 바로, 한국 최초의 원두커피 전문점이다. 한국전쟁 당시 춘천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에티오피아 병력을 기리기 위해 1968년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춘천을 방문했다. 그를 계기로 에티오피아 황실의 원두를 직접 공급받는 카페가 시작되었고, 깊은 역사와 인연만큼 질게 배인 커피 향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예가체프로 유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를 마시며 공지천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책과인쇄박물관

©책과인쇄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때때로 작가와 예술가들, 세상의 잡담과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꾀하며 또는 창작에의 열정과 기대로  
그림자처럼 조용히, 소문 없이 춘천으로 숨어들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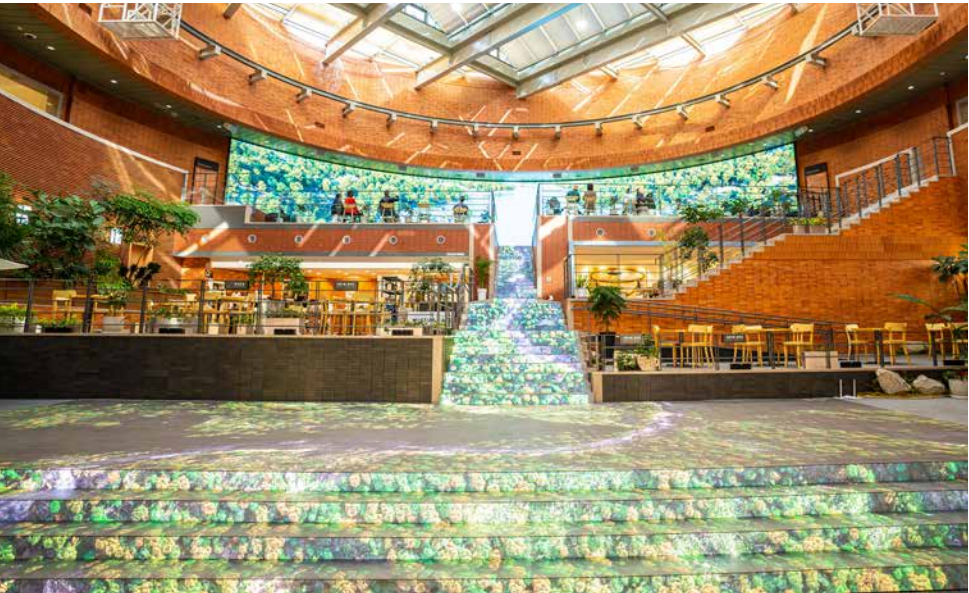
춘천, 그가 내 안에서 사는가,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가.

오정희 「봄내 이야기」



구봉산 카페 거리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이범수



국립춘천박물관

**의암호 물레길**  
주소: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13-1  
운영시간: 09:00~18:00(12~2월 휴무)  
문의: 033-250-3089

**책과인쇄박물관**  
주소: 강원 춘천시 신동면 풍류길 156  
운영시간: 09:00~18:00(월요일 휴무)  
문의: 033-264-9923  
입장료: 성인 7천 원, 청소년 6천 원,  
어린이 5천 원

**구봉산 카페 거리**  
주소: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139-137  
운영시간: 00:00~24:00(연중무휴)

**국립춘천박물관**  
주소: 강원 춘천시 우석로 70  
운영시간: 09:00~18:00(월요일 휴무)  
문의: 033-260-1500  
입장료: 무료

**여운의 공간**  
**국립춘천박물관**

춘천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고독과 거리감과 낮섬을 전해주는 곳이라고 소설가 오정희는 말했다. 삼십 대 초반부터 춘천에서 머문 작가에게 춘천은 다양한 이면을 가진 도시인 동시에 문학적 영감의 토대가 되었다.

수많은 예술가에게 예술의 원천이 되었던 춘천에는 2002년 개관해 강원 지역 문화의 원형을 담아내고 있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있다. 10만 년을 이어 온 강원의 삶과 위대한 유산을 만날 수 있고 금속이나 돌로 만든 보살상과 철로 만든 불상 등 불교 조각의 다채로움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지역 명승지를 유교적 이상향으로 삼았던 선비들이 남겨 놓은 문화와 예술의 세계도 깊이 있게 전시하고 있다.

국립춘천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 ‘창령사 터 오백나한’은 춘천을 찾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2001년 영월 창령사 터에서 발굴된 오백나한은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으로 대중과 만난 뒤 국내외를 순회하며 큰 울림을 주었다. 그간 서울, 부산, 전주, 제주 등을 다녔고, 2022년에는 한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시드니에서 열린 특별전에서 23만 명이 넘는 현지 관람객을 만나기도 했다. 가는 길마다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왔던 오백나한은 다시 돌아와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로 춘천을 찾은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나한은 부처의 제자로, 불교의 진리를 깨달아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존재이다. 오백은 불교에서 아주 많은 수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종교적 색채가 짙게 스민 불상을 떠올릴 법하지만, 국립춘천박물관의 오백나한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만드는 이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어 이상향의 무게감보다는 일상의 희로애락이 담긴 표정으로 완성되었다. 기쁨, 희망, 분노, 슬픔, 환희 등 인간의 다양한 정서를 담고 있는 오백나한. 비쁜 일상을 틈타 춘천을 찾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정리. 편집팀



# 우리가 몰랐던 북미 원주민의 이야기

미국 덴버박물관 원주민 미술부 다코타 호스카Dakota Hoska 큐레이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언론공개회와 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다코타 호스카 큐레이터. 북미 원주민 출신으로서 지역 원주민들의 소통을 이끌고 협력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원주민 미술을 소개하고 있다. 다코타 큐레이터에게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미지의 세계를 물었다.

**Q** 북미 원주민에 뿌리를 둔 분이기엔 이번 전시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A**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와 관계자분들이 좋은 포인트들을 잘 살려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전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북미 원주민의 이야기가 이곳 한국에 전달된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지요. 한때는 생존을 걱정하던 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들이 남긴 예술품으로 현대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벅찬 감동입니다. 북미 원주민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중요하다고, 이번 전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보면 매우 기뻐할 것 같아요.

**Q** 지난 6월 전시 연계 강연에서 북미 원주민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전시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관람객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A** 미디어에서 보는 하나의 모습을 전체의 이미지로 각인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날리며 말을 타고 평원을 달리는 인디언의 이미지는 단편에 불과합니다. 570여 개의 부족 별로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주민의 정의와 생활양식은 절대 하나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다채로움을 기억하고 전시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Q** ‘다양한 부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강연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조화를 위한 부족 간의 소통 방식이 궁금합니다.

**A** 과거에는 부족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어로 소통했습니다. 많은 부족이 남성 수어와 여성 수어를 각각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미국의 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의 기초가 사실은 원주민들이 사용한 수어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연계 대중 강연회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전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북미 원주민의 이야기가 이곳 한국에  
전달된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지요.  
한때는 생존을 걱정하던 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들이 남긴 예술품으로 현대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벅찬 감동입니다.

**Q 북미 원주민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나요?**

**A**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의 뿌리이기도 한 라코타 족의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코타 족은 주거지인 티피 텐트 바깥면에 기록을 남겼어요. 대부분 전투 기록들이었죠. 이외에도 윈터 카운트(Winter Count)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윈터 카운트는 들소 가족에 기록한 일종의 달력인데요. 그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을 들소 가족에 그림으로 묘사하고 연도별로 순서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어요. 오래된 윈터 카운트에는 100여 년의 기록이 남게 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곧 역사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양식 달력이 보급되면서 윈터 카운트 사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북미 원주민들이 크나큰 갈등과 위기를 겪으면서 윈터 카운트는 자취를 감추었죠. 재료가 천연 섬유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고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윈터 카운트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아쉽게도 덴버박물관 역시 윈터 카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미 원주민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전시에서 많은 공예품이 눈길을 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단면을 기록하고 또 만들고 공유하면서 북미 원주민의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군요. 아직도 소개하지 못한 작품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A** 무궁무진합니다. 북미 원주민의 세계가 다채로운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과 접점을 만들어

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아름다운 도자기의 역사가 긴 한국의 작품과 북미 원주민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덴버박물관이 보유한 아름답고 역사가 오래된 구슬 공예 작품들을 한국의 관람객에게 다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으로 지쳐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북미 원주민의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A** 전시장에 붙어있는 원주민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영감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덧붙여 저는 라코타 철학을 들어 말씀드릴게요. 북미 원주민들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철학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지각을 많이 한 사람을 두고 '인디언 타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북미 원주민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화가 있을지도 모르니 비단 북미 원주민만의 지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일이든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기성품을 만드는 과정처럼 삶을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경험을 놓칠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선형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A에서 B로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여기고 그 길 위에서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편집팀

잠시 멈춤



## 북미 원주민이 전하는 지혜의 속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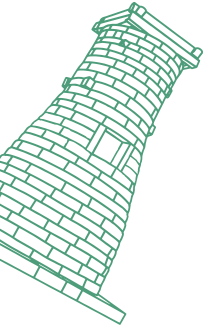
Whisper of Wisdom from the Natives of North America

우는 걸 두려워 마라.  
울음은 당신 마음을 슬픈 생각에서 해방시킬 것이니.  
소리 내어 진정으로 울 줄 아는 자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호피족 잠언



QR코드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의 잠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제71기 특별반을 모집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

2024.7.16.~9.22.

국립경주박물관에는 특별한 학교가 있다. 박물관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이다. 봄이 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한동안 꾸준히 다닌다. 71년째다. 전시는 70주년을 맞은 경주와 국립경주박물관의 학교, 곧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의 운영 의미와 전승 가치를 조명한다. 제목은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이다. 그 뜻은 학교의 역사와 교육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오롯이 잇고 이룬 사람의 노력과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1970년 경주어린이향토학교 시절 봄소풍



1950년대 수업안내에 사용된 포스터

## 어린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1954년 10월 10일,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가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사회의 재생과 사람의 생계에 온 힘을 썼던 시절이었다. 스승이 된 어른들은 문화유산이 넘치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아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낼 방법을 고민하며 의논하였다. 의논 중에 생활에 바쁜 어른 대신 마음이 순수하고 생계의 부담을 지지 않는 어린이를 교육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곧장 실천한 결과가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다.

스승들은 어린이들의 성질, 처지, 심성을 헤아려 특별한 약속을 하였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입학과 퇴학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달렸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 수업은 존댓말로 한다. 학교의 약속과 교육은 한 해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 눈보라가 치고 찬 바람이 부는 날에도 스승이 학교에 나와보면 어린이 한둘도 꼭 와 있었다. 이렇게 소중하게 이어온 역사와 진심을 전시 이야기로 지었다. 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 전시 속의 크고 작은 제목, 문장, 표현들은 스승과 제자의 글들, 학교 자료의 대목, 교가의 구절, 지난 40주년, 50주년, 60주년 특별전 제목들을 이야기의 맥락에 맞춰 빌려 썼다.

## 소중한 기억, 특별한 배움

전시는 크게 네 가지 주제 공간(‘유포는 새싹들이 자라나는 곳’, ‘학교 밖의 학교, 박물관’, ‘하늘도 내 교실, 땅도 내 교실’, ‘아, 우리 어린이박물관학교’)으로 구성된다. 공간 각각의 핵심어는 ‘기억’, ‘배움’, ‘익힘’, ‘연결’이다.

‘기억’의 장에서는 스승의 마음과 학교의 지난 시간을 소개한다. 진흥섭, 윤경렬, 이승을, 박일훈이 학술 모임 ‘목요회’에서 개교를 결의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학교 연표(‘전통을 잇는 정성’), 설립 정신(‘얼을 심는 학교’)을 설명한다. 윤경렬이 짓고 조지훈이 다듬은 가사에 윤이상이가 곡을 붙인 교가는 개교 초기, 학교의 정착에 큰 힘이 된 지역 내외의 사회적 관심을 대표한다.

이번 전시의 차별적인 기획 요소는 관람자가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제71기 특별반에 입학해서 다섯 가지 경험을 거치며 수료하는 절차의 설정이다. ‘배움’의 장은 그 첫 과정을 연다. 입학하여 학생증을 발급한 다음, 1955년 개교 1주년을 경축한 시인 조지훈과 초대 국립박물관장 김재원의 육성으로 축하를 받는다.

“... 그도유포터에, 박물관 자리에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학교란 산 교육기관을 세우는 곳은 경주 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물러서지 말고 공부 잘하시길 멀리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지훈

“... 경주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곳 박물관만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주 전체가 우리나라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박물관학교를 졸업한후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훌륭한 박사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재원

바로 이어지는 “학교에서 뭐 하는데요?”는 1990년 학생모집 공고부터 2023년 졸업앨범까지 학교,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남긴 여러 종류의 기록으로 학교 교육과 학생 성장의 과정을 생생하게 안내한다. “학교에서 뭐 보는데요?”는 학생들이 배우고 깨달았던 교재와 교본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매우 높고 까다로운 수준에서 어린이들을 전문가로 대하며 키운 스승들의 열의가 도드라진다.







독특한 익힘, 귀중한 연결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교육과정의 독창성은 학습과 탐구의 대상이 신라 천 년의 도읍 경주를 가득 채운 문화유산들과 직결된 데서 나온다. 교육이 교실의 공부에 머물지 않고 체험과 놀이, 현장 방문과 고적 답사 등의 연계 활동으로 확장되고 일련의 교육 단계를 평가로 종합하는 체계 또한 눈에 띄는 특성이다. ‘익힘’의 장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진 활동 가운데 몇 가지를 선정해서, 앞서 경험한 배움을

더 넓힐 수 있는 체험들로 연출하였다. 학생이 된 관람자들은 1957년 경주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된 ‘개교 3주년 기념 학생 작품 전시회’를 모형과 디지털 영상으로 직접 전시하고, 1970~80년대에 활발했던 ‘경주 고적 답사 버스’의 여정을 자신의 경주 여행과 비교하며 지나가 보고, 입학해서 여기까지 배우고 익힌 경험들을 바탕으로 ‘경주 역사 문화 힘겨루기’ 평가에 도전하게 된다.

도전이 끝나면, 관람자들은 지금껏 쌓

아온 성취로 특별전 교육과정을 수료한다. 그 뒤로 들어서게 되는 공간이 ‘연결’의 장이다. 제1기 김윤근에서 제71기 이기범까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그들이 담담하게 전하는 마음들은 70주년을 맞은 학교의 긴 시간이 결국 사람의 진심에서 나왔다는 교훈을 전한다. 관람자들에게 미래의 학교 교육을 묻는 장치도 구축하였다. 이는 100년, 그리고 그 이후를 계속 향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 방식에 학교 밖의 사람들이 가진 기



대를 담아보려는 시도다. 차곡차곡 쌓이는 반응들은 전시를 마감한 다음에 집계해서 2025년도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쪽 벽에서 박물관은 관람자들에게 묻는다. “지금 무엇을 배우고 익히며 살고 있나요?” 질문 위쪽으로는 제71기 재학생들의 문장들이, 아래쪽으로는 제70기 이전 졸업생들의 문장들이 벽면을 채운다. 앞서 박물관이 알려준 학교의 배움과 익힘을 이제 관람자들이 자기 삶의 배움과 익힘으로 이어 나가기를 제안하는 질문이다. 역시 학교 졸업은 사진이 정점을 찍는다. 기념사진을 찍고 나가는 길에 제71기 재학생들이 떠올려 모은 2054년 개교 100주년 수업계획표와 2025년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모집 요강이 게시되어 관람자들을 흥미롭게 환송한다.

다니길 잘했다

“다니길 잘했다.” 제34기 졸업생의 소감이 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서 잘 자랐다. 2024년 7월 20일,



제71기 학생들이 수료하였다. 올봄에 들어온 어린이들이다. 국립경주박물관 한편에 있는 고창지 위 수목당으로 들어와 한 시절 신라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역사를 배우고, 역사에서 사람으로 퍼지는 진심을 익혀서 박물관 밖 넓은 신라, 큰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고창 윤경렬의 품 안, 수목 진흥섭의 마음 안에서 제자들이 또 잘 자랐다. 전시 포스터 속의 고창지와 수목당, 그리고 피어난 연꽃들은 세대를 넘겨도 사람들이 함께 굳건히 지켜온 개교의 약속, 이후로 지켜갈 약속들을 상징한다. 경주에 연꽃이 한창일 시기에 열리는 특별전도 더불어 활짝 피서, 관람자들이 여행으로 잠시 찾아온 박물관에서 이야기로 문득 감동하게 되는 학교를 잘 다녀가길 바란다.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개교 70주년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은 100년을 향하는 학교의 역사에서 각별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 옥재원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1954. 10. 10.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개교
- 1955. 10. 개교 1주년 기념식 개최, 교가 발표
- 1957. 10. 개교 3주년 기념 학생 작품 전시회 (경주시립도서관)
- 1959. 야외 수업 개시

- 1962. 08. ‘경주어린이향토학교’로 교명 변경
- 1966. 07. 신라문화동인회, 학교 지원 협의

- 1970. 12. 경주어린이향토학교 뒷받침회 발족, 교재 제작 지원
- 1975. 07.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 1975. 12.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로 교명 변경

- 1982. 11. 청소년·일반부 교육 과정 신설, ‘경주박물관학교’로 교명 변경
- 1984. 10. 제1회 문화재 그리기·만들기·글짓기 대회 개최
- 1984. 11. 경주박물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잔치 개교 30주년 기념 교지 『새얼』 발간
- 1987. 10. 개교 33주년 기념식 및 현판식 거행 『경주박물관학교 교본 제1집』(종합본) 발간

- 1990. 07. 『경주박물관학교 교본 제2집』 발간
- 1994. 10. 개교 40주년 특별전 <하늘도 내 교실, 땅도 내 교실> 개최

- 2004. 10. 개교 50주년 특별전 <아! 우리 어린이 경주박물관학교> 개최
- 2008. 청소년 교육 과정 운영 종료,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로 교명 변경
- 2014. 10. 개교 60주년 특별전 <학교 밖의 학교, 박물관> 개최
- 2024. 07. 개교 70주년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 개최

1954

1960

1970

1980

1990

2000



1955년 박물관 학교 교가 악보



1967년 어린이향토학교 교본 『경주 고적 해설집』 윤경렬 엮음 졸업생 (제12기) 박부호의 교본



1970년 전후 『교재(제1집) 토기편』 『제1회 복습문제』 어린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문제지



1987년 『경주박물관학교 교본 제1집』(종합본) 윤경렬 지음 경주박물관학교 발간



1990학년도 모집 안내문



2023년 수업 동해안 답사



# 연꽃을 든 관음보살상, 튜립의 나라를 찾다

네덜란드국립박물관 Stichting Het Rijksmuseum 아시아관 <목조관음보살상> 첫 특별전

2024.7.3.~2026.5.20.

목조관음보살상  
조선  
높이 89.4cm,  
전체너비 65.2cm  
약수 1979



2024년 6월 25일 오전 4시 반, 아직 어두운 밤하늘. 신선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엔진 소리가 퍼져나간다. ‘목조관음보살상’ 보관 상자를 싣는 대형 트럭이 박물관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순간이다.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2년 후에 뵙겠습니다.’ 긴 여행을 떠나는 누군가를 보내듯, 마음속으로 인사 한마디를 건넨다. 아쉬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이다.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인 ‘목조관음보살상’은 앞으로 2년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인들을 만날 것이다. 아마도 만들어진 이래,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떠나는 여정인지 모른다.



네덜란드국립박물관 전경

©Rijksmuseum



네덜란드국립박물관 아시아관 내 전시품 설치 장면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네덜란드국립박물관은 ‘라익스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렘브란트, 페르메이르, 반 고흐 등 네덜란드 대가들의 작품을 보유한 네덜란드 대표박물관이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유럽 최고의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전시 공간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아쉬움이 컸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과 네덜란드국립박물관은 양국을 대표하는 문화 기관으로서 전시품 대여 및 전시실 개편 지원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실 지원 사업으로 네덜란드국립박물관과 진행하는 첫 번째 결실이다.

네덜란드국립박물관에 특별 전시되는 ‘목조관음보살상’은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2021년)에도 선보인 바 있다. 화려한 보관을 쓰고, 사뭇히 연꽃을 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준다. 누구의 조각인지 작가 이름은 전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미소, 양어깨에 드리운 머리카락, 구불구불한 옷 주름 등 독특한 표현 방식을 볼 때, 조각승 진열<sup>進悅</sup>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진열은 1700년대 중반에서 1720년대 전반까지 수조각승으로 활동했으며, 부산 범어사 관음전 관음보살상을 제작한 승려 조각가이다.

조선시대 목조상은 대개 두 손과 머리에 쓰는 보관, 손에 든 연꽃을 별도로 조각해 끼우기 때문에 제작 당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드문데, 이 상은 만들었을 당시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 일본과 달리 승려가 직접 조각상을 만들었던 조선시대 승려 장인을 생각하면, 종교의 영역이자 예술의 영역으로서 불상이 제작되는 과정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게 된다.

연꽃을 든 보살상은 앞으로 2년간 세계인을 만나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작지만 강한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대표적 중계무역지로 유럽뿐 아니라, 세계인을 아우르는 유럽의 중심 도시이다. 17세기 조선의 생활상을 유럽에 처음 소개했던 하멜의 나라이기도 한 이곳에서 조선의 불상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 사절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듣는 자비의 화신인 ‘관음보살’의 의미처럼, 보는 이들을 널리 위로하기를, 튜립의 나라에서 한국의 연꽃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목조관음보살상’을 감상하는 관람객

©Rijksmuseum

글. 백승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 2024년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9만 5천 명 기록

코로나19 이전 대비 56%, 2023년 대비 35% 상승



올해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수가 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상반기 대비 최고 기록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6만 1천 명보다 56%, 박물관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한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수 증가에는 한국 문화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수준 높은 전시와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츠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1년 개관한 '사유의 방'과 2022년 말 새롭게 단장한 '청자살이' 외국인 관람객에게 큰 호평을 얻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은 디지털 광개토대왕릉비, 파노라마 영상으로 만나는 정조의 화성행차와 강산무진도의 감각적인 영상도 외국인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맞춤형 전시해설과 AI 전시 안내 로봇 역시 외국인 관람객 수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진행되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관람객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3,900명의 외국인이 맞춤형 전시해설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전시품 해설과 체험을 함께 즐기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은 국내 거주 외국인 단기 유학생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로봇 '큐아이'도 외국인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박물관 한국식 지원 사업과 한국 문화유산 해외 특별전 개최는 외국인을 한국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미국 덴버박물관의 <무심한 듯 완벽한, 한국의 분청사기>와 보스턴박물관의 <한류>는 전통 문화부터 현대문화까지 다양한 범위의 K-콘텐츠를 선보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미국 덴버박물관,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등에서 대규모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 방문에 발맞춰 더욱 다양한 전시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더욱 편리한 관람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제1기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 아카데미 성료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과정 제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7월 9일부터 25일까지 '제1기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가한 14개 부처 소속 29개

국립박물관 재직 학예연구사 109명은 현장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 54개 강좌를 수료했다.

교육 과정은 일반 과정과 특화 과정으로 분리해 운영됐다. 일반 과정은 최근 박물관·미술관 현장에서 시의성 높은 주제인 접근성, 디지털, ESG 등으로 구성됐다. 특화 과정은 기관 특성, 경력 단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 전문 과정으로 단계별 과정, 분야별 과정, 연구 과정으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선 국립중앙박물관 전문인력들은 '공감을 이끄는 박물관 전시 기획', '변화를 이끄는 전시 기획과 운영', '기억에 오래 남는 전시의 법칙',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전시 환경 기획' 등 학예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전시품 설치와 연출', '디자인과 조명', '대형 석조 유물의 이동과 설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했다. 이밖에도 전시 도록과 홍보물 제작, 수장고 및 소장품 관리, 브랜딩 전략 등 실무에 유용한 강좌도 다수 진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 훈련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포괄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립·대학·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아카데미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 국립대구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 특별전

‘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 –투겁창 및 꺾창’ 등 3건 73점



국립대구박물관은 7월 9일부터 특별전시실에서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와 보물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품은 2021년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21,693점의 일부로 국보 ‘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투겁창 및 꺾창’과 보물 ‘전 고령 일괄 유물’이 대표적이다.

국보 ‘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투겁창 및 꺾창’은 1956년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산 북쪽 자락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한 것으로, 창과 꺾창을 비롯해 칼과 칼집 부속구, 양산살 끝 꾸미개 등과 함께 발견됐다. 이 청동기는 원삼국시대 대구지역 국읍(國邑)의 위치와 위상을 알려주는 주요 자료로 인정받아 1971년 국보로 지정됐다.

보물 ‘전 고령 일괄 유물’은 대가야 왕과 왕족의 묘역으로 알려진 경북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전시품은 유리구슬 목걸이, 큰 칼, 말갈춤 등으로 대가야 지배계층의 복식문화와 물질문화를 잘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이번 특별전시는 2025년 6월 29일까지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은 손으로 그려낸 소중한 문화유산

전주와 광주에서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개최



전국 국립박물관에서는 어린이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심어주고자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부여, 진주, 김해에서 진행된 대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주와 광주에서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지난 6월 24일 개최한 ‘제32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림전’의 수상작을 9월 29일까지 상설전시관 로비에서 전시한다. 전시는 어린이의 시각으로 본 문화유산의 색다른 면모를 담은 작품 25점으로 구성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은 8월 12일 ‘제3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사전에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하며, 대학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한다. 창의력, 묘사력, 표현력을 기준으로 으뜸상, 버금상, 솜세상, 꿈나무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10월 1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 발표한다. 별도의 시상식과 전시회도 개최한다.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연계 상품 출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전시품 활용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과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의 전시품을 활용한 상품을 출시했다.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은 북미 원주민의 문화와 예술을 종합적으로 다룬 전시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전시품을 선보인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를 ▲‘카치나’ 킬링(4종) ▲안경 파우치(3종) ▲트레이(2종) ▲자석 ▲엽서 등에 담았다. 카치나는 전통 인형을 뜻하며, 자석과 엽서에는 종이형, 목재형 두 가지가 있다.

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는 한국, 일본, 중국의 독특한 칠기문화를 조명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한국의 ‘나전칠기’를 주로 활용한 ▲나전합 손거울(2종) ▲나전합 마그넷 브로치 ▲박물관 킬링(나전) ▲특별한 양장수첩(나전) 등을 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에 자리한 상품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온라인 뮤지엄숍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인사동정(6.16.~7.15.)				
정무직 임명	2024-07-08	차관급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입	2024-07-01	서기관	현정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2024-07-01	시설주사	김태웅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7-01	사무운영 주사보	곽현진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4-07-08	행정주사	이희경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실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승진	2024-06-17	시설주사	최양서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시설사무관
	2024-06-19	행정주사보	김정희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행정주사
	2024-06-19	공업주사보	노윤래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공업주사
	2024-06-19	공업주사보	이현수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공업주사
	2024-06-19	공업주사보	김경동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공업주사
	2024-06-19	공업서기	전흥권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공업주사보
	2024-06-19	행정서기보	손나리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행정서기
	2024-06-19	행정서기보	오지은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행정서기
	2024-06-19	행정서기보	유지우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 행정서기
	2024-06-19	행정서기보	권경미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 행정서기
	2024-06-19	전산서기보	김태경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전산서기
	2024-06-19	공업서기보	이은혁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공업서기
	2024-06-19	공업서기보	이수찬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 공업서기
	2024-06-30	방호서기	이상석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방호주사보
	2024-06-30	방호서기	염순혜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방호주사보
전출	2024-07-01	학예연구사	강경남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 학예연구관
	2024-07-01	행정주사	손화경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 행정사무관
	2024-07-01	학예연구사	권혁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 학예연구관
	2024-07-01	학예연구사	이상미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학예연구관
전보	2024-07-01	학예연구사	배진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 학예연구관
	2024-07-02	방호서기	김영일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방호주사보
	2024-06-17	시설사무관	최윤식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실
	2024-06-28	행정사무관	김상아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휴직
수습 임용	2024-07-01	사무운영 주사보	윤지영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국립국악원
	2024-07-04	행정주사	김효진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실
	2024-07-08	행정서기보	이윤정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정책관실
	2024-07-08	행정주사보	김도윤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국립국어원
휴직	2024-07-01	학예연구관	이수경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 국립춘천박물관장
	2024-07-01	학예연구관	박경은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지원근무)	→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024-07-01	학예연구관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024-07-01	학예연구관	안경숙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복직	2024-07-01	학예연구관	채해정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024-07-01	학예연구관	강경남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2024-07-01	학예연구관	이상미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2024-07-01	학예연구관	배진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휴직	2024-07-08	행정서기	유지우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4-07-15	9급수습	김서진 수습임용	→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
	2024-06-26-2024-12-03	행정서기	소보미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2024-07-01-2024-08-31	전기운영 주사보	우현욱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연장
휴직	2024-07-01-2024-10-26	방호주사보	경강오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2024-07-01-2025-03-31	행정주사보	이경순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2024-07-02-2025-07-01	학예연구사	신나현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 휴직
	2024-07-07-2024-07-31	학예연구사	박해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 휴직 연장
복직	2024-07-04	시설주사보	박종형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직
	2024-07-08	공업주사보	김수창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직



	8 AUGUST	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2 DECEMBER
	<div> <div></div> <div>심장생, 열 가지 이야기   2023.5.2.~2024.8.18.</div> </div> <div>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div> <div>〈탈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div> <div>〈진천 영수사 폐불〉   2024.5.1.~10.13.</div> <div>〈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2024.6.18.~10.9.</div> <div>〈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나석주〉   2024.7.26.~10.9.</div> <div>〈三國三縣-동아시아의 길〉   2024.7.10.~9.22.</div> <div>〈영남권역 수장고(개발형 수장고)〉</div> <div>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개교 70주년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   2024.7.16.~9.22.</div>				
중앙	<div>〈조물조를 꿈에 빛는 도자기〉</div> <div>아시아도자문화, 역사문화 1,2</div> <div>〈도자기, 종류를 품다〉   2024.6.21.~9.22.</div> <div>〈서예, 일상에서 예술로〉   2024.6.27.~2025.2.28.   인천공향박물관</div> <div> <div>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div> <div>   2024.5.3.~8.18.</div> </div>				
경주	<div>〈고 이견희 회장 기증 대구 경북의 국보와 보물〉   2024.7.9.~2025.6.29.</div> <div>개관 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   2024.5.14.~9.22.</div>				
광주	<div>〈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 〈백제금동대향로〉, 디지털 실터 〈백제를 실감하다〉</div> <div>아와전시장 개편   2024.5.~</div>				
전주	<div>충청권역 수장고(개발형 수장고)</div> <div> <div>〈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div> <div>   2024.9.10.~2025.2.9.</div> </div>				
진주	<div>〈임진왜란〉, 〈경남역사문화〉</div> <div> <div>경상도 사기장 이야기(가제)</div> <div>   2024.9.30.~2025.2.23.</div> </div>				
청주	<div>〈꼬마 친구들의 박물관 운동회〉, 〈문화유산 속 금속 이야기〉, 〈우리집에 놀러올래?〉</div> <div>〈기록, Map of You〉   2024.6.25.~11.3.</div>				
김해	<div>〈세계유산 가야〉   2024.1.23. ~</div> <div> <div>〈허타이트〉   2024.10.8.~2025.2.2.</div> </div>				
제주	<div> <div>고 이견희 회장 기증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2024.6.4.~8.18.</div> </div>				
춘천	<div>〈한송사 터 석조보살〉, 〈이성향으로의 초대, 금강산과 관동팔경〉</div> <div>〈지금 여기, '休': 한국인의 이상향〉   본관 심간영상을</div> <div> <div>〈어느 수집가의 초대〉   2024.9.11.~2024.11.24.</div> </div>				

<div> <div>〈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1.~2024.12.31.</div> <div>〈국립나주박물관 다시, 열다〉   2023.12.15.~</div> </div>	
<div> <div>〈도솔이와 함께 떠나는 미륵사 시간여행〉   2022.1.11.~</div> <div>신기술융합콘텐츠 〈미륵사지 기록집〉   2022.1.11.~</div> </div> <div> <div>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공동기획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2024.9.10.~11.24.</div> <div>〈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 2025.3.3.</div> </div>	

	교육 프로그램	일시	장소
부여	8차 온(ON) 가족 신선놀이	8.23.(금)~8.26.(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온라인	
	온라인 실시간 '세계적인 걸작, 백제금동대향로'	8.30.(금) 09:50~10:50	온라인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전! 백제금동대향로 박사'	8.1.(목)~8.31.(토)	온라인
	한국의 색·향·미	8.1.(목)~8.16.(금)	전시실, 교육실
	유 퀴즈? 관찰하GO생각하GO	1.12.(금)~12.31.(화)	상설전시실
공주	교과서에서 나온 문화유산	4.3.(수)~11.30.(토)	유적지 현장
	구석구석 수장고 탐험	8.8.(목), 8.9.(금), 8.13.(화)	충청권역수장고
	슬기슬기 사람들의 도구	8.1.(목)~8.3.(토)	세미나실
	제67기 공주박물관대학 - 공주 <sup>8월</sup> 에서 공주 <sup>Princess</sup> 를 만나다	8.14.(수), 8.28.(수)	강당
	모두 같이 즐겨요	8.30.(금)	전시실, 세미나실
진주	임호를 풀어라! 충청권역수장고	7.25.(목)~9.1.(일)	충청권역수장고
	불잔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8월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전시실
	이 팀은 어디서 왔을까?	8월 매주 수~금 10:00~10:40	교육실, 야외 전시실
	조선 수군 체험	8월 매주 화~일 10:00~17:0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취약 계층 초청 역사문화 체험교실	8.17.(토) 2회	교육실, 전시실
청주	석신로드(AR콘텐츠)	상시	아외정원
	Map of You(특별전 연계 교육 공간)	6.25.(화)~11.3.(일)	특별전시실
	제16기 어린이 토오박물관학교	8.17.(토)	세미나실
	제22기 박물관 연구과정	8.22.(목)	소강당
	큐레이터와의 대화	8.29.(목)	상설전시실
김해	가야나라 공작소_토기편	8월 매주 화 10:00~11:00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8.28.(수) 16:00~17:00	상설전시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8.31.(토) 10:00~11:30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박물관 탐구생활	8월 매주 수·목·금	교육실
	오명기명 박물관	8월 중	각급 학교
제주	제37기 제주어린이박물관학교	8.3.~8.31. 매주 토 10:00~12:00	교육실, 전시실
	[특별전연계]큐레이터와의 대화	8.7.(수) 16:30~17:00	기획전시실
	느영나영 고치글라	연중 예약제, 매주 화~목 10:00	교육실, 전시실
	[초등 단체] 새밖들의 박물관 나들이'	8월 매주 화~금 14:00~15:30	체육학습실, 전시실
	[문화소의계축] 함께 기묘, 박물관 나들이	8월 매주 화~일 10:30 / 14:00 / 16:00	어린이박물관
나주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8월 매주 토~일 10:00 / 14:00	행복학습터
	[성인] 박물관에서 배우는 팬블루트/한지공예	8월 매주 목 10:00 / 14:00	어린이박물관
	제27기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	8.10.(토), 8.24.(토) 9:30~11:00	어린이박물관
	도솔이와 함께 떠나는 미륵사 시간탐험	8.3.~8.31. 매주 토 14:00~16:00	어린이박물관
	박물관 속 고도 익산 여행	8.3.~8.31. 주말 및 공휴일 10:00~17:00	상설전시실

	교육 프로그램	일시	장소
중앙	〈공간 오감〉 여가, 우리, 빈가사유상	8.1.~8.31. 매주 화·목·토, 10:00~11:30 / 14:00~15:30 8.22.(목) 14:00~15:30 제외	공간 오감
	세 나라, 세 빛깔-동아시아의 칠기	8.5.(월), 8.6.(화), 8.8.(목), 8.9.(금) 10:00~12:00 / 13:30~15:30	특별전시실
	전문가 대상 교육-유초등 교원 박물관 연수	8.8.(목), 8.13.(화) 14:00~16:00 8.14.(수) 16:00~18:00	강의실
	문화어울림(병원학교)-박물관 탐험대	8.21.(수)~12.11.(수)	병원학교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인터랙티브 미술 참여	6.18.(화)~10.6.(일) 상설	특별전시실
경주	[뉴이츠등 저학년] 웰지에서 만난 신비로운 동물들'	8.6.~8.27. 매주 화 10:30~11:30 / 13:30~14:30	어린이박물관 오픈 랩실
	[초등학교 단체] 교과서 속 문화유산	8.7.~8.28. 매주 수 10:00~11:00	강당
	[노년층 단체] 박물관 백세 청춘 미당	8.8.~8.29. 매주 목 14:00~16:00	지역 노인 복지시설, 수목당
	[유아/초등 저학년] 뛰뛰 박물관 날리기차	8.10.~8.31. 매주 토·일 10:00~17:50	어린이박물관
	[성인] 큐레이터와의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박물관'	8.28.(수) 17:00~17:30	어린이박물관
광주	박물관 활용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	8.7(수)~8.9.(금)	교육관 체험학습실, 전시실
	여름! 박물관과 과학관이야기 〈도자기〉	8.20.~8.30. 매주 화~금	교육관 체험학습실, 전시실
	박물관은 내 친구	8월 중 예약제	교육관 체험학습실, 전시실
	전북에 있는 우리 마을 보물찾기	~8.25.(일) 매일	상설전시실
	2024 서예인문학	8.28.(수)	세미나실
전주	금산사로 소풍가요	~8.17.(토) 매주 토	교육실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8.18.(일)	특별전시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염원	~8.18.(일)	어린이박물관 1층
	특별전 큐레이터와의 대화	8.17.(토)	특별전시실
	또박또박 써내리는 글씨	8~10월 화·목·토 2시간	인천공향박물관
대구	살랑살랑 불어오는 글씨	8~10월 화·목·토 2시간	인천공향박물관
	[초등 가족] 신나는 박물관	6.1.~9.21. 매주 토 10:00~11:30	문화사랑방
	[관람객] 꽃신 만들기	8.2.(금), 8.9.(금), 8.16.(금) 14:00~15:30 / 16:00~17:30	문화사랑방
	[관람객] 박물관에서 만난 한글점자	8.6.(화)~8.8.(목)	문화사랑방/예술관 로비
	[초등 제24회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전시	8.12.(월) 13:00~16:00	상설전시실
부여	[관람객] 큐레이터와의 대화	8.21.(수) 14:00~15:00	기획전시실
	[관람객] 문화제 그림단추	매주 토요일 14:00~16:00	해설관 로비
		8.9.(금) 14:00~15:30	전시실, 교육실
		8.14.(수) 10:00~11:30	



박물관을 가득 채울 4팀 4색 공연

8월의 특별한 공연을 찾고 있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박물관문화향연’에 주목해 보자. 에스닉 퓨전 사운드를 선보이는 ‘두번째 달’부터 세계적인 젊은 음악가들의 열정을 즐길 수 있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해외아카데미 연주회’, 장애 아티스트들의 감동적인 연주를 보여주는 ‘아트위캔’, 웅대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공연까지! 4팀 4색을 보여주는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 두번째 달

일시: 2024.8.3.(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여러 나라의 고유 민속음악을 모든 이에게 다양한 접근법으로 친근하게 들려준다.’라는 음악적 슬로건을 가지고 탄생한 월드뮤직 밴드 ‘두번째 달’은 색다른 ‘에스닉 퓨전<sup>ethnic fusion</sup>’ 사운드를 선보이고 있다. 2005년 1집 발매 이후 꾸준히 크로스오버, 드라마 OST,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해외아카데미 연주회

일시: 2024.8.10.(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KNSO국제아카데미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들의 성장을 돕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젊은 음악가들과 세계적인 멘토 연주자들의 열정 넘치고 생생한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 아트위캔

일시: 2024.8.17.(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장애 아티스트들의 기반을 다져주고자 설립되었다. 음악을 전공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 교육 및 연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해 직업 연주자로의 기회를 연계하여 자립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 양방언

일시: 2024.8.24.(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양방언은 웅대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피아니스트이다. 그의 음악은 클래식에서부터 록에 이르는 폭넓은 스펙트럼과 다채로운 전통악기와의 협연이 돋보인다. 한국에서는 2002년 솔로 앨범 발매를 계기로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 8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87회

18:00~18:30

19:00~19:30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조각공예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발견과 공감”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곽신숙

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기>(5)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오세은

조선 18세기 백자 이야기

분청사기·백자실 (304·305호)

미술부 임진아

어린이를 위한 북미 인디언 교육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이영신

8.7.

788회

18:00~18:30

19:00~19:30

기증관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세계문화관

유강열과 현대판화

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기>(6)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5)

격물치지 관물찰리<sup>格物致知 觀物察理</sup>

기증Ⅳ실(205호)

특별전시실(121호)

알던 사람들(5)

중국실(309호)

고객지원팀 김승익

세계문화부 전인지

기획전시실

유물관리부 윤종균

전시과 김혁중

8.14.

789회

18:00~18:30

19:00~19:30

8.21.

서화관	특별전시실	서화관	중·근세관
김홍도의 <서원아집도> 서화Ⅱ실(202~4호) 미술부 이해경	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기>(7)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오세은	불교 의식과 불화(1) 불교회화실(203호) 미술부 김영희	봉사조선창화시권 조선Ⅱ실(118호) 고고역사부 서윤희

790회

18:00~18:30

19:00~19:30

8.28.

중·근세관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서화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고려Ⅱ실(116호) 고고역사부 임혜경	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기>(8)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전인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6) 기획전시실 전시과 이진민	서화/지류 문화유산의 과학적 조사 서화Ⅰ실(201호) 보존과학부 장연희





webzine.museum.go.kr

#### 표지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 2년마다 돌아가며 국립박물관장회의를 엽니다.

2014년부터는 국립박물관장회의와 연계한 공동특별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동특별전의 주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예품 ‘칠기’로, 14~19세기 삼국의 대표 칠기 46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삼국은 옷칠을 사용하여 각각 한국 ‘나전칠기’, 일본 ‘마키에’, 중국 ‘조칠기’라는 고유의 칠공예품을 완성했습니다. 붙이고 뿌리고 새기는 삼국 고유의 장식 기법과 형태, 색채, 무늬 등 독창적이면서 화려한 칠공예품을 마음껏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